

八旗制度의 成立過程에 대한 一考察

金 鐘 圓*

I.

八旗制度는 滿洲族의 社會發展의 一定한 歷史的 段階의 산물이고, 하나의 제도화된 군대의 탄생을 표명한 것이며 아울러 정치기구가 완비된 것을 말해 주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또한 滿洲族의 부족적 결합, 女眞諸部の 정복 및 淸朝의 창건 과정에 있어서 군사편성의 중핵을 이룸과 동시에 사회통치조직을 구성하고 다시 국가구성의 기초를 만든 것으로서 그 기원은 萬曆 29년(1601)의 四旗설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 八旗制를 바탕으로 성립된 滿洲國을 族制國家를 벗어난 封建國家로 보는 견해가¹⁾ 있는 만큼 八旗制의 기원이 滿洲族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획기가 됨은 물론, 그것의 완성은 역사발전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결절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八旗制는 淸初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明代 女眞族이 가졌던 사회상태의 연장변형이었다. 따라서 明代 女眞 사회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기본단위가 점진적인 이합집산과 융합·개편의 과정을 거쳐 滿洲國의 성립을 보게 되었고, 그 성립의 기본골격이 八旗制였다. 그러한 사회의 기본단위의 융합·개편은 물질적 기초위에 가능하였고 사회경제적 변화는 여러차례의 계급분화를 가

* 釜山大學校 史學科 教授

1) 三田村泰助, 滿洲國成立過程の一考察(東洋史研究 2-2, 1936) p. 34

저와 마침내 奴兒哈赤에 의해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명말 여진족의 사회구성,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계급분화 및 八旗制의 기원과 滿洲國의 權力構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II.

누루하치(女兒哈赤)가 전 女眞部族을 통일하여 滿洲國을 건립할 때까지의 女眞族의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는 穆昆=族·群(mukun, uskun), 嘎山=寨·鄉村(gashan)이었다. gashan은 明代 이래로 존재했던 女眞族의 촌락형태였다. 대개 城(hoton)·堡(hecen) 둘레에 흩어져 있는 자연촌인 法拉哈(falga)가 여러개 모인 것이다. falga는 길 옆에 있으며 10호 이상으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러개의 falga로 구성된 gashan은 자연집단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독립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다음에 mukun은 씨족 또는 무리라는 뜻인데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姓(hala) 및 一族·一門(uksun)이다. gashan과는 달리 mukun은 자연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도 여전히 혈연집단이다.²⁾ 원래 滿洲族은 동일한 hala(姓) 곧 어떤 씨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단위가 커짐에 따라 씨족성원의 연계나 씨족집회가 불가능해지고 생활조건에 따라 씨족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곧 滿洲族의 여러 씨족은 서서히 그 내부조직을 상실하였으나 씨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씨족의 소분파인 mukun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³⁾

이러한 gashan과 mukun은 각각 독립된 집단을 이루고 gashan da=嘎山達(gashan의 長), mukun da=穆昆達(mukun의 長)의 지도하에 군사행동이 나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gashan da, mukun da는 族

2) 同上書

3) S.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A study of the Manchu Clan Organization, Shanghai, 1924(大間知篤三·戶田茂喜譯「滿洲族의 社會組織」刀江書院, 1967, p. 22)

長, 寨·村長으로 불리는 酋長인데, 酋長과 管下部民은 모두 諸申(jusen=女真人)이었다. 양자의 관계는, 管下部民은 酋長에 대하여 경제적, 군사적인 것과 그 밖의 여러가지 봉사의 의무가 있었고, 酋長은 그 봉사에 대하여 그들을 비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다.⁴⁾

누루하치가 “尼堪外蘭 너는 우리 아버지의 部下(jusen)의 무리였는데”⁵⁾라고 말하였듯이, 尼堪外蘭은 塔克世의 管下部民이었으나 塔克世가 죽은 다음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독립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酋長과 管下部民은 보호와 봉사라는 상부적 제약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거래적인 지배에속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양자간에는 거의 차등이 없는 동등하고 완전한 자유민이었다.⁵⁾ 이 jusen 이 불안정한 사회정세에서 강력한 酋長을 찾아 안전을 구하게 되고 반대로 酋長은 적대관계에 있는 酋長을 공격하여 사람을 약탈하여 새로이 管下の 部民으로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族·寨·村에는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어 세력이 강한 추장이 차례로 통합하여 유력한 大酋長으로 성장하였다. 이 유력한 大酋長이 흠어져 있는 同一血族을 동맹관계로 묶고 외적에 공동대처하는 방법을 구하였는데 aiman(部)이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이 aiman은 酋長들이 서로 혈족관계에 있는 gashan이 결합한 것이었으나 후에 가서 來歸하거나 정복된 다른 씨족의 gashan이나 mukun도 이(部) 가운데 통합되었고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다른 酋長의 통솔권을 빼앗아 部の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몇개의 gashan, mukun의 결합체인 aiman이 다시 여러개 통합되어 gurun=國을 형성하였다.⁶⁾

이와같은 유력한 大酋長이 aiman의 최고 통솔자나 군사지도자가 되는 예는 滿洲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4) 篤淵一·戶田茂喜; ジュセンの一考察(東洋史研究 5-1, 1939), pp.5~6

5) 滿洲實錄(今西春秋 注釋) 卷 1, 萬曆 11年, p.24

6) 篤淵一等 前掲論文 p.7

7) 同上書 pp.8~12

寧古塔의 覺昌安 계 4의 사람(四祖)은 재주가 있고, 子 禮敦은 또한 용감하고 힘이 센데 寧古塔의 貝勒등을 碩色納의 子等 九長(uyun ta) 一族을 쳐서 패배시켰고 加生呼의 子等 七長(nadan ta)를 도륙함으로써 五嶺에서 동쪽, 蘇克素滸河源에서 서쪽 2백리 내의 部(aiman)를 복종시켰는데 그로부터 寧古塔의 貝勒等이 강성하게 되었다.⁸⁾

고 하였다. 覺昌安(누루하치의 祖 giocangga)과 그의 아들 禮敦(Ridun)은 uyun ta 및 nadan ta와 같은 酋長을 죽이거나 패배시켜서 그 酋長들의 통솔권을 박탈하여 2백리 내의 部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覺昌安 부자는 본부를 赫圖阿拉(hetu ala)에 두고 그 一族(uksun)은 12 gashan에 나누어서 살고 있었으나 동일혈족으로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비록 동맹관계에 있는 一族이라 하더라도 aiman의 지도자가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을 수 없을 때에는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그 집단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棟鄂의 部長 克徹巴顏이 寧古塔 貝勒의 部屬인 동남쪽의 두 곳을 침범하였을 때, 寧古塔 貝勒 一族의 대부분은 12 gashan에 흩어져 있으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한 곳에 모여살 것을 결의하였으나, 索長阿(三祖)의 아들 武泰(utai)는 이를 거절하고 그의 처부인 哈達의 萬汗에게 도움을 청하였다.⁹⁾ 이것은 바로 불안정한 사회에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방법은 큰 세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첩경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루하치가 군사를 일으키기 조금 전(그가 19세되던 1577년경)의 여진족의 사회는 곳곳에서 群雄이 일어나 약탈과 살륙을 함부로 하여 약한자가 강한자에게 併呑되는 약육강식의 실상을 보이고 있었다. 滿洲實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때에 도처에 國(gurun)에 난이 일어났는데, 滿洲國의 蘇克素護河의 지방의 部, 渾河의 지방의 部, 完顏의 지방의 部, 棟鄂의 지방의 部, 哲棟의 所의 部, 白山의 지방의 訥殷, 鴨綠江의 部, 東海 지방의 窩集, 瓦爾喀, 庫爾哈의 部, 呼倫國의 烏拉의 지방의 部, 哈達의 지방의 部, 葉赫의 지방의 部, 輝發의 지방의 部,

8) 滿洲實錄 卷 I, p. 9

9) 同上書 pp. 11~12

도처에서 賊盜가 蠶蜂과 같이 시끄럽게 일어나 각각 스스로를 汗, 貝勒, 大人이라 말하고, 村(gashan)마다 長(ejen), 族(mukun)마다 長(uju)이 되어 서로 공격하여 싸우고 형제간이라도 죽었다. 一門(uksun·親族)이 많고 힘센 무리가 약한 것을 학대하고 약탈하여 크게 어지러웠다.¹⁰⁾

群雄이 할거하면서 살륙과 약탈이 자행되는 非情의 세계가 현출되는 가운데 gashan 이나 mukun(혹은 uksun)은 離合集散을 거듭하면서 총명하고 통솔력이 있는 유력한 大酋長에게 통합됨으로써 aiman 을 이루고 다시 gurun 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gashan 이나 mukun 의 결합체인 aiman, 몇개의 aiman 이 모여서 이룩된 gurun 에서도 기본적인 단위는 gashan · mukun 이었다. 유력한 大酋長의 정벌에 의해서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酋長의 인솔하에 귀순하는 경우도 있다. 정복된 사람은 戶(boigon)에 편입되거나 俘虜(olji)로서 장병에게 상으로 내려주었다. 누루하치가 烏拉을 정복하고 멸망시켰을 때 “ula 의 병이 싸우다가 도망간 다음, 아이들·처들을 찾아서 돌아온 자에게 아이들·처들 및 노복(aha)을 모두 돌려주어서 1 만의 戶(boigon)를 만들고 그밖에 부로(olji)를 여러사람의 병졸에게 나누어준 다음 회군하였다”¹¹⁾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boigon 에는 部下(jusen)와 國民(irgen)이 포함되는데¹²⁾ jusen, irgen 은 각기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jusen 은 병사로서 전쟁과 수렵이 주가 되고 irgen 은 농사와 요역을 맡았다. 그리고 棟鄂의 部の 長 克轍巴顏의 손자인 何和里(hohori)라 부르는 大人(amban)이 그에 소속된 jusen, irgen 을 거느리고 항복해왔다”¹³⁾고 한 것이 바로 귀순한 경우인데, 이 때에는 자기의 管下部民을 그대로 거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0) 同上書 pp. 14~15

11) 同上書 卷 3, 壬子(萬曆 40 年, 1612) 12 月, p. 119

12) 同上書 卷 7, 辛酉(天啓元年, 1621) 11 月 18 日, p. 283

13) 滿洲實錄 卷 2, 戊子(萬曆 16 年, 1588) 4 月, p. 55

Ⅲ.

15세기말에서부터 누루하치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까지 女眞族의 사회경제는 어떠하였을까?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진족사회의 기본단위는 gashan 과 mukun 이었는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은 균등하지 않았다. 어떤 촌락은 물질적 생산이 앞섰으나 어떤 것은 원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朝鮮·明과의 접촉이 잦은 변경지방의 여진족은 비교적 사회발전이 빨랐던 것 같다. 이들은 수렵·목축 및 채집생활이 주가 되고 농업은 생활에 보탬을 주는 정도였다가 15세기 말부터는 반대로 농업생산이 주가 되고 수렵·목축 및 채집에서 얻는 물품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5세기 초엽에는 농경을 일삼지 않고 고기잡이나 수렵을 업으로 삼았다.¹⁴⁾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던 화살촉이나 승마용구는 물론이고 농기구와 소까지 朝鮮이나 明을 통하여 들어간 것¹⁵⁾을 보면 농경이 상당히 보편화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建州衛의 어떤 部落는 80호나 되는 큰 마을인데 농사는 전혀 돌보지 않고 도적질만 일삼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질하였는데, 가을철이 되면 인삼채취에 탐을 내어 마을을 온통 비우고 나갔다¹⁶⁾고 한다. 여진족은 “仁義가 부족하고 人性이 탐욕하여 재물을 얻는 데에 급급하여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人畜을 노략질할 뿐 아니라 쌍아롱은 곡식을 불살고 사람도 태워죽이는”¹⁷⁾ 등의 무도한 야만인으로 朝鮮사람에게 비꼰던 것이다.

婆猪江유역과 阿木河(會寧) 근처로 이주했던 建州衛와 左衛는 식량이

14) 朝鮮 太宗實錄 卷 19, 10年 5月 丙子~戊寅

15) 同上 成宗實錄 卷 52, 6年 2月 辛巳 滕紹箴, 入關前滿族的社會經濟概論(「中國史研究」82-1, 中國社會科學研究院歷史研究所)

16) 朝鮮燕山君日記 卷 16, 2年 7月 丙寅

17) 朝鮮 世宗實錄 卷 77, 19年 4月 庚午, 5月 己酉

모자랐기 때문에 조선의 국경지방에 와서 國糧, 鹽醬, 穀種을 구걸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糧米를 강요하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정부는 국경의 소요를 막을 생각에서 그들을 위무하고 요구를 들어주어 평화적인 從屬關係를 유지하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조선의 태도와는 달리 建州女眞은 계속적인 糧米의 공급을 요구하고 또 그들의 毛皮와 조선의 농산물, 농기구 및 소와 바꾸어갈 互市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조선측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국경침입의 악순환만 거듭하였다. 그 결과 朝鮮과 明의 3차에 걸친 대원정이 벌어졌다(1433, 1437, 1467).¹⁹⁾

이와같이 여진족은 어느 정도 농업사회로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朝鮮과 明의 정벌로 말미암아 촌락이 초토화되고 주민이 사방으로 분산됨으로써 농토가 다시 황폐화되었다. 이로부터 1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국경소요로 잠잠하였다.²⁰⁾ 그러한 가운데에도 村落간에 혹은 部族간에는 전쟁이 끊일나위가 없었다. 전쟁에 패배한 村落이나 部族의 성원은 俘虜나 編戶가 되어 승리한 추장의 세력속으로 편입되었다. 朝鮮과 明의 여진정벌은 여진사회발전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주지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가족이 흩어져 독자적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발전이 느릴 수 밖에 없었다.²¹⁾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생활방도를 강구하여 부단하게 생산수단을 개편 발전시킨 결과 15세기말 16세기초에는 농경이 상당히 보편화 되었다. 이제는 수렵·목축 및 채집에서 점차 농업생산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18) 同上書 卷 20, 5年 4月乙亥, 6年 11月甲申, 7年 1月辛卯

19) 同上書 卷 60, 15年 5月丁巳·己未, 19年 9月辛丑

明 憲宗實錄, 成化 3年 10月甲寅·壬戌

20) 朝鮮 中宗實錄 卷 100, 38年正月丁未 建州等衛 本東方俘虜也 臣訪得自成化年間 大肆猖獗 一歲間入寇九十七次 殺虜人口十餘萬 憲宗皇帝震怒 命將搗巢誅滅 既盡 延今五六十年 東工晏然

21) 朝鮮 世宗實錄 卷 64, 16年 5月戊子

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로 보다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확보가 절실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곧 소와 농기구의 구입인데 무역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불법적인 약탈이 보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1437년(世宗 19年, 明 正統 2年)에는 “농사짓는 사람(여진인)은 필시 소가 적어서 新田을 개간하여 熟田을 만들 수 없었다”²²⁾고 할 정도로 소가 귀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475년(成宗 6年, 明 成化 11年)에 이르면 “옛날에 野人(建州)은 나무를 굽혀서 등자(鎗)를 만들고 鹿角을 깎아서 화살촉을 만들었으나 지금 들으니 등자와 화살촉을 모두 쇠로 만든다고 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조선)에서 五鎭에 貂皮를 貢納(貢納強制)함으로써 守令이 進上을 빙자하고 백성들을 誅求한계에 달미암은 것이다. 貂皮는 野人의 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농기구 혹은 소로서 바뀌오니 실로 적을 도우는 일이다”²³⁾ 조정의 貢納강제가 빚는 어이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여진족 사회에서 농경화가 가속되는데 따른 생산수단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1516년(中宗 11年, 明 正德 11年)에 이르면 “소·말·鐵物을 저들(여진인)에게 넘겨주는(轉賣) 일이 매우 많았으나 禁令으로 막을 수 없었다”²⁴⁾고 하는 바, 그 만큼 수요가 늘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여진족은 鐵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선이나 明을 통하여 鐵을 구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들은 鍊鐵기술이 없고 다만 각종 농기구나 그 밖의 鐵物을 구입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개조하였다.²⁵⁾ 여진사회에서 鐵器사용이 보편화되고 소의 구입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증대는 물론이고 그 밖의 手工業品이나 수렵·채취품의 양적

22) 同上書 卷 77, 19年 6月 戊子

23) 同上 成宗實錄 卷 52, 6年 2月 辛巳

24) 同上 中宗實錄 卷 25, 11年 5月 庚戌

25) 同上 成宗實錄 卷 52, 6年 2月 辛巳

증가를 가져와 사회구성원의 소비를 넘어서고 상품화하는 경향이 짙어갔다. 그리하여 15세기 말에는 “茅屋에 살지만 방은 크고 깨끗하며 또 큰 계약에 쌀을 가득 담아놓고, 집집마다 두대의 다듬이돌이 있었으며, 田地는 비옥하고 개·돼지·닭·오리를 또한 많이 길렀다”²⁶⁾는 것이다. 여진족의 일부 선진 부락에는 비교적 발전된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농업생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농민을 확보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농민은 농업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조선이나 명으로부터 약탈을 통해 확보하게 된 말하자면 노예적 존재였다. 이러한 납치당한 사람들이 여진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상품으로 매매되기도 하고 심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예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여진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진사회도 세계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원시사회, 노예제사회를 거쳐 봉건제사회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²⁷⁾ 邊境變革說을 빌리지 않더라도 중국이 오랜 봉건사회를 누리고 있을 때 여진족 특히 建州女眞은 빠른 템포로 발전하여 짧은 기간동안에 원시사회에서 봉건제를 바탕으로 한 집권국가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뚜렷한 단계를 거쳤다가 보다는 원시사회·노예제사회 및 봉건제 사회의 제요소가 중층적으로 병존하다가 변화·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재빨리 실현시킨 경우에는 항상 그 발전의 민족적 담당자가 변하고 오히려 변경의 뒤떨어진 민족에 있어서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에의 변혁이 전개되고 있다”²⁸⁾는 논리는

26) 同上書 卷 252, 22年 11月戊子

27) 藤紹敏, 前掲論文,

鄭天挺, 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歷史研究) 1962—6期:「清史論叢」第1集, 存華學社編集, 大東圖書公司印行, 香港, 1977)

周遠廉, 關於 16世紀 40~80年代初建州女眞和早期滿族的社會性質問題(「清史論叢」第1集,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清史研究室編, 中華書局, 1979)

28) 太田通透, 世界史의 理論(一)——邊境變革說과 共同體의 問題(岩波講座, 世界歷

여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하튼간에 여진족이 中國人이나 조선인을 노략질하여 농업노동자로 구사하거나 상품으로 매매한 것은 일찍부터의 일이었다. 이미 1433년(世宗 15년, 明 宣德 8년)에는 “建州女眞이 무리를 불러 모아 몰래 국경을 넘어 와서 도적떼를 만들고 남녀 70여명을 잡아가고 40여명을 죽였으며, 소, 말 및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²⁹⁾는 것이다. 그리고 1477년(成宗 8년, 明 成化 13년)에는 “野人이 上國을 剽掠하여 노복과 사환으로 부리는 것이 그들의 습속이다”³⁰⁾고 하였고, 1483년(成宗 14년, 明 成化 19년)에는 “唐人 劉時는 7,8세 때 沈應吾가 毛鄰衛로부터 말 한필을 주고 산 사람이다”³¹⁾고 하였다. 建州女眞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俘虜로 잡는 것을 奇貨로 삼아 서로 돌려가며 매매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³²⁾ 다투어 사람을 잡아간 것이었다. 그들의 습속이 동족끼리 노예로 삼지 않고 반드시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매매하거나 각종 잡역에 종사케 하는데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함부로 죽이기도 하였다.³³⁾

이와같이 조선인과 중국인의 노예가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였다. 이 민족 노예의 수용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가져와 여진사회를 원시자연경제에서 농경경제로 전환하는데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여진인의 사회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예노동에 의해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예소유의 다과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노예를 다수 소유하는 자가 부를 증대시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노예는 각종의 수공업 기술도 보급시켰다. 아직 煉鐵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철제생산공구는 중국이나 조선을 통해 수입하였으나, 冶匠·冶工·弓人이 있어서 각종의 농기구나 무기를

史 30. 別卷 「現代歷史學の課題」 第2章 〈歷史學の理論と方法〉, 1971)

29) 朝鮮 世宗實錄 卷 59, 15年 1月癸亥

30) 同上 成宗實錄 卷 80, 8年 5月朔丁卯

31) 同上書 卷 152, 14年

32) 朝鮮 燕山君日記 卷 17, 2年 8月朔乙亥

33) 同上書 同年 8月己亥

제작·수리하였을 것이고, 16세기 초에는 建州여진에서 麻布를 짠데 그 생산이 많아졌으므로 점차로 상품화되었다.³⁴⁾

그리하여 1578년(萬曆 6)~1584년(萬曆 12)동안에 建州·海西여진이 開原에서 漢人과 교역한 檔冊에는 당시의 무역상황이 활달했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³⁵⁾ 첫째로 교역이 빈번하고 교역인원수도 많았다. 1차에 수백 명씩 많을 때는 1천여명이었으며, 전기간에 참가한 연인원이 11,874명에 이르렀다. 둘째 海西여진이 교역하던 開原의 鎮北關·廣順關 보다 建州女眞의 撫順關에서의 교역물품이 수량이나 품목에서 훨씬 많았다. 셋째로 女眞인이 구매하는 것은 대량의 鐵鑊, 鐵鍋, 耕牛, 食鹽, 衣, 布 등의 생산공구 및 생활필수품이었다. 넷째 海西女眞이 매입하는 주요화물은 鑊子牛, 羊, 猪, 緞, 襖 등인데 shit가로 계산하면 折銀 852兩이었다. 그러나 매출화물은 人參 한가지만 하더라도 최저가로 쳐서 32,500兩(3,619斤×9兩)이었고, 거기에 貂皮 4,724장, 狐皮 577장 기타 잡물을 합한 것이 또한 1萬兩이 넘었다.

이와같이 1570년대 이래로 여진족은 자기들의 생산품과 漢族의 그것을 대대적으로 교역함으로써 경제교류가 밀접하게 되었고 수입한 생산공구를 써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넓히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사회경제의 발전이 눈부시게 되었다. 그리고 교역이 번성하게 됨에 따라 재산의 사유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교환경제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사유제의 발전에 따라 씨족성원간에 계층분화가 일어나 일부 윤택한 대추장이 재부의 축적을 거듭함에 따라 顯貴의 지위를 차지하고 더욱더 다른 추장의 재부의 약탈·착취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누루하치가 군사를 일으킬 때의 여진족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34) 朝鮮 成宗實錄 卷 52, 6年 2月辛巳

同上書 卷 159, 14年 10月戊寅

周遠廉, 上揭論文, p. 159

35) 周遠廉, 上揭論文, pp. 159~161

IV.

八旗制의 기본이 되는 牛泉(niru)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사는, 滿洲實錄(卷 3) 辛丑年(萬曆 29年)正月條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장이다.

이 해에 滿洲國의 太祖 淑勒貝勒이 그가 보았던 國(衆)을 다스려서 30의 男을 1 牛泉(niru)라 하고 牛泉마다 額眞(ejen)을 두었다. 이에 앞서 전쟁할 때나 수렵할 때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1 門(uksun) 1 門 (1 門마다) 村(gasan) 村(村마다)이 (단위가 되어) 행하게 되었다. 처음에 滿洲國의 사람들이 수렵을 하려고 물이를 시작할 때 사람마다 화살을 잡는데 10사람에 한 사람의 장(ejen)을 두고 10사람을 다스려서 제각기 장소를 어기지 않고 가게 하였다. 이 사람을 牛泉의 額眞이라 불렀고 이로부터 牛泉額眞이 官名이 되었다.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편제의 기본단위인 niru는 uksun과 gasan(gashan)이 기준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곧 종래 滿洲族은 수렵할 때에 10인을 1대로 하는 단체조직이 있었고 그러한 단체가 族·寨(村) 단위로 師獵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族·寨를 개편하여 niru제로 융합·재편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향촌구성의 기본단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mukun(uksun)·gashan과 같은 것이 滿洲國 성립과정에서 八旗制 가운데에 어떻게 흡수·개편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 먼저 누루하치가 군사를 일으켜서 族·寨를 통합하는 경위부터 찾아보겠다.

1583년(萬曆 11) 누루하치가 父·祖의 원수를 갚고자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갑옷(uksin) 13벌 뿐이었다. 그 해 5월 父母의 원수인 尼堪外蘭(nikan wailan)의 圖倫城을 공격할 때에는 병졸 100명에 갑옷 30벌이었다.³⁶⁾ 이 때 그는 조그마한 gashan의 酋長에 불과하였고, 그

36) 今西春秋 注釋, 滿洲實錄(滿文體記事 以下同) 卷 1, pp. 25~26

의 一族(uksun)인 寧古塔 貝勒의 자손들도 그를 죽이려고 공동으로 堂子에 서약할 정도로 질서와 냉대를 받고 있었다.³⁷⁾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의 사회실정은 “도적에 도적이 꿀벌같이 시끄럽게 일어나 각각 스스로를 높여 汗, 貝勒, 大人이라 말하고 gasan 마다 長, mukun 마다 長이 되어” 상호간에 약탈과 살육이 자행되던 양육강식의 전국시대였다.

1584년(萬曆 12) 4월에 누루하치의 집에 도적이 들었다가 잡혔을 때 家人들은 죽이자고 하였으나 그는 “이 사람을 죽이면 그의 주인이 나에게 나타나 싸움을 걸게 된다. 싸움을 하면 나의 병사가 적은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거절하였다. 다음 달에 義蘇(isu)라는 사람이 누루하치를 암살하려다가 붙잡혔을 때에도 그의 형제·朋僚(gueuse)·家人들은 모두 죽이자고 하였으나, 그는 “이자를 죽인다면 이 사람의 주인이 살인했다는 이유로 나타나 싸움을 걸고 우리들의 양식(물어둔)을 파간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들의 jusen이 배반한다. jusen이 배반하면 우리들의 몸만 남는다. (이 때) 성을 포위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화살이 얼마나 되는가(부정적). 이자를 죽이면 gurun이 모두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³⁸⁾ 위의 인용문 가운데 「gurun이 모두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고 한 부분의 漢文體는 「又恐別部議我殺人啓釁」이라 하였는데 別部란 한 것을 보면 누루하치가 소속되어 있는 部 이외의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이 누루하치는 병력이 적고 양식과 병기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글자 그대로 총명한 beile(淑勒貝勒)였다. 이러한 그의 웅대한 포부를 알아차리고 자원하여 복속한 사람이 蘇克素護河部の 薩爾濟 城主의 弟 諾蜜訥, 嘉木湖 寨主 噶哈善 哈思虎, 沾河 寨主 常書·楊書 형제들이었다. 이들은 geshan의 酋長들로서 자기의 部民(jusen)을 거느리고 누루하치에게 귀속한 것이다.³⁹⁾

37) 同上書 p. 24, p. 30

38) 同上書 甲申(萬曆 12年) 5月 pp. 35~37

이 때는 16세기초 이래로 여진사회가 원시적 유세를 지니면서 농경경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유력한 酋長은 노예사역을 통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벌과 약탈로서 자기의 세력을 더욱 확대시켜나갔다. 노예와 재화 획득에 혈안이 되던 당시의 사회풍조는 바로 이러한 전환시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寧古塔의 寶實 貝勒의 아들 阿哈納(ahana)는 薩克達部的 巴斯顏 巴圖魯의 妹를 娶하려고 하였으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재부가 결혼의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巴斯顏 巴圖魯는 그의 妹를 棟鄂의 部長 克徹 巴顏의 아들 額爾機 瓦爾喀에게 出嫁시켰다.⁴⁰⁾ 그것은 克徹 巴顏이 富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富와 權力에 의존하려는 심리는 자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기 때문이다. 寧古塔의 索長阿 貝勒은 克徹巴顏의 아들 額爾機 瓦爾喀의 살해범이 자기의 奴僕이라고 허위진술하고 財貨를 탐내는 寸劇을 벌이다가 그것이 禍根이 되어 棟鄂部長 克徹 巴顏의 공격을 받았다가 哈達의 萬汗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으나 이로부터 寧古塔部는 점차 쇠퇴하여 갔다.⁴¹⁾

누루하치가 군사를 일으켜서 尼堪外蘭을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그 배후에 응대한 정치적 포석을 펼치려는데 있었다. 尼堪外蘭은 明兵을 사주하여 父·祖를 살해케 한 원수라는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고 또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였다. 그리고 明의 지방관이 “너가 거역한다면 尼堪外蘭에 편들어 嘉班에 성을 쌓아주고 尼堪外蘭을 너의 滿洲國의 汗을 삼을 것이다”⁴²⁾고 하였듯이 尼堪外蘭은 明의 지방관의 두터운 신임과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薩爾濟의 城主 諾

39) 同上書 癸未(萬曆 11)年 pp. 24~25

滿文老檔(東洋文庫叢第 12, 滿文老檔研究會譯註, 東洋文庫, 1955) 1, 太祖 1, 萬曆 35年 3月, p. 4

40) 同上書 卷 1, p. 9

41) 同上書 pp. 11~12

42) 同上書 p. 24

密納, 누루하치의 從祖(三祖) 索長阿의 子 龍敦, 哈達國의 萬汗까지 尼堪外蘭을 滿洲國의 汗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尼堪外蘭을 타도하면 그의 지위·명예·권리·재물까지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이 때 누루하치 주변의 주장들의 향배가 결정되고 있었다. 즉 위에 든 諾密納, 龍敦 및 萬汗이 尼堪外蘭편에 가담한 셈이고, 嘉木湖寨主 噶哈善 哈思虎, 沾河의 寨主 常書·楊書 형제가 누루하치에게 복속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누루하치는 명분과 실리를 찾아 신중하고 총명하게 주변문제부터 처리해 나갔다. 최초로 尼堪外蘭이 거처 하던 圖倫城을 攻取한 다음 尼堪外蘭을 도망케 한 薩爾濟城主 諾密納·爾喀達 형제를 죽이고 薩爾濟城을 차지했다. 이로부터 누루하치는 部內의 mukun, gashan을 차례로 정복하고, 또 그의 명성과 통솔력에 굴복하여 귀순함으로써 1585년(萬曆 13) 9월까지 蘇克素護河部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듬해(1586) 7월에 尼堪外蘭을 捕殺함으로써 父·祖의 원수를 갚았을 뿐 아니라, 明으로부터 매년 銀 800兩, 蟒緞 15疋을 歲幣로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1583년(萬曆 11)에 그는 父·祖의 誤殺을 항의하여 明朝로부터 父·祖의 屍身과 더불어 勅書 30道 말 30필을 보내왔고 또 都督의 勅書까지 받는 영예를 지니고 있었다.⁴³⁾

이 尼堪外蘭의 捕殺은 누루하치의 滿洲國 발전에 중대한 轉機가 마련된 셈이다. aiman내에 그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어졌고 게다가 交易의 證書인 勅書와 歲幣는 그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1587(萬曆 15)에는 呼蘭哈達(hulan-hada)의 동남 嘉哈河(giyaha)의 한 가운데에 있는 언덕에 3층의 성을 쌓고 衙門과 樓臺를 만들었고 6월 24일에는 國政을 정하고 나쁜 짓하거나 난을 일으키는 것, 흠치고 속이는

43) 同上書 卷 1, 萬曆 11年, p.23 卷 2, 丙戌(1586) 7月, p.52 東夷考略(謝國楨輯「清初史料四種」, 北平圖書館, 1933)〈建州〉條에는 奴兒哈赤가 都督이 된 것이 萬曆 17年(1589)이라 하였다.

것을 엄금하게 하는 法度를 정하였다.⁴⁴⁾ 大酋長으로서의 偉容을 갖추고 영역내를 다스릴 관아와 행정기관 및 법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제도정비와 면모일신의 사실을 누루하치의 제 1차 즉위(滿洲國 汗位)로 보는 견해가 있다.⁴⁵⁾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단정이라 생각된다. 누루하치는 비록 빠른 속도로 여러지역을 복속시켰으나 1587(萬曆15) 초까지는 蘇克素護河部の 대부분과 渾河, 哲陳部の 일부지역을 통합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哈達의 萬汗이나 葉赫의 清佳努, 揚吉努들은 모두 처음에는 部長이 되었다가 遠近의 모든 aiman 을 복속시킨 다음 汗位에 오르고 있고 또 實錄撰者도 그것이 常識인 것 같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누루하치가 이 때에 즉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滿洲國이란 국호문제인데, 이 국호가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설이 없다. 1600년경에 그 호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太宗(皇太極)이 太祖(누루하치)가 제정한 「後金」의 국호를 없애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滿洲로 개칭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⁴⁶⁾ 여하튼간에 1587년초에 「滿洲」國號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서 입증할 수 있다. 滿洲實錄(卷 1) 滿文體기사에 누루하치가 기병하기 조금전인 1577년(그가 19세 되던 해) 경의 주변의 정세에 대하여 “滿洲國의 蘇克素護河部……東海지방의 窩集·瓦爾喀·庫爾喀部, 呼倫國의 烏拉部……輝發部”등 2개의 國과 14개의 部를 열거하고 있다. 滿洲國에 소속된 部는 모두 10개인데 그 영역은 거의 현재의 남만주 일대가 대개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당시에 이지역에 걸친 국호로서 滿洲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實錄撰者가 建州女眞이 활약하던 지역 및 그 민족을 모두 높여서 부르고

44) 滿洲實錄, 卷 2, 丁亥年(萬曆 15), p. 52

45) 安部健夫, 八旗滿洲ニルの研究(東亞人文學報 1-4, 1942; 「清代史の研究」1971, p. 358)

46) 三田村泰助, 前掲論文 p. 121

稻葉岩吉, 滿洲國號の由來——東方民族と佛教との關係(增訂 滿洲發達史, 日本評論社, 1943)

자 한 데에 기인한 것 같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끝 부분에는 “그 도처에서 난이 일어난 gurun 을 滿洲國의 太祖 英明汗이 거역하는 무리는 병력으로서 쳐서 순종케 하고 복종하는 무리는 德으로 따르게 하여 하나로 통일하고 大明國을 쳐서 처음으로 遼東·廣寧의 땅을 얻었다”고 한 것은 상당히 후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太祖가 되기 전에 처음부터 太祖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滿洲의 국호도 후기에 쓰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1591년(萬曆 19)에는 汗稱이 나타난다. 즉 葉赫의 納林布祿 貝勒이 누루하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의 말을 쓰는 gurun 에 烏拉·哈達·葉赫·輝發·滿洲(등) 5인의 han이 아직도 살아 있을(존재할) 도리가 있는가 gurun이 너에게 크고 나에게서 작다. 너의 額勒敏·北庫木이 두 지방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나라라고 말하였다”⁴⁷⁾는 것이다. 이로부터 5개국이 각각 汗을 자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는 滿洲國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서 葉赫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稱汗사실은 朝鮮實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589년(宣祖 22)에 建州衛 女眞人 수십명이 조선에 귀순하고 누루하치의 사정을 보고하였는데, 그 가운데 “左衛酋長 老己可赤 형제는 建州衛酋長 李以難 등을 麾下에 복속시켰고 老己可赤은 그(부족)안에서 王을 자칭하였고(自中稱王) 그 동생(舒爾可齊)은 船長이라 불렀다”⁴⁸⁾는 것이다. 누루하치가 비록 자기 부족 내에서는 王을 자칭하였으나, 明과 朝鮮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칭호도 「建州左衛都督」 혹은 「龍虎將軍」⁴⁹⁾이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누루하치의 稱汗은 1589년 이전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누루하치가 滿洲國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획기가 된 것은 1588년(萬曆 16)이었다.

47) 滿洲實錄 卷 2, p. 6

48) 朝鮮 宣祖實錄 卷 23, 22年 7月 丁巳—(丁卯)

49) 滿洲實錄 卷 1, pp. 23~24, 卷 2, p. 52, p. 62

前掲 東夷考略에는 龍虎將軍이 된것이 萬曆 23(1595)이라 하였다.

“蘇完部長 索爾果 大人이 그에 소속된 jusen, irgen 을 거느리고 복속하였다. 그의 아들 費英東(fiongdon)을 제 1 등 大人이 되게 하였다. 또 棟鄂部長 克鞞 巴顏의 손자 何和里(hohori) 大人이 그에 소속된 jusen, irgen 을 거느리고 귀복하였다. 太祖 淑勒貝勒은 그의 장녀 嫩哲格格을 주고 사위로 삼고 제 1 등 大人으로 하였다. 雅爾古寨長 扈拉瑚 大人은 그의 형제와 1門(uksun)의 사람들을 죽이고 jusen, irgen 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太祖 淑勒貝勒은 扈拉瑚의 子 扈爾漢을 그의 覺羅姓에 넣어 아들로서 기르고 제 1 등 大人으로 삼았다. 그와같이 각 지방의 大人을 불러서 복종케 할 정도로 들레의 gurun 을 명정한 다음부터 滿洲國이 차차로 강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그 때에 大明國의 萬曆汗에 매년 사신을 보내어 화명을 지킴으로써 5百道の 勅書의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 gurun에서 생산되는 明珠, 人蔘, 黑狐, 元狐, 紅狐, 貂鼠, 狡狸, 豹, 虎, 海獺, 水獺, 青鼠, 黃鼠 등의 갖가지 毛皮를 가지고 가서 撫順所, 靑河, 寬甸, 豐陽 등 4개의 關에서 교역하여 財寶를 얻음으로써 滿洲國은 부강하고 왕성하게 되었다.”⁵⁰⁾

우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이 때에 蘇克素護河部 이외에 蘇完部, 棟鄂部, 雅爾古寨와 같은 종래 적대관계에 있던 부족이 귀속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이미 귀속한 渾河部와 哲陳部, 그리고 같은 해(1588)에 항복한 完顏部와 더불어 6개의 部(aiman)가 통합되었다. 따라서 實錄에서 소위 「滿洲國」에 포함시키고 있던 部는 白山지방의 部와 東海지방의 部를 제하고 완전히 통일되었다. 이 통일과정에서 雅爾古寨長 扈拉瑚의 경우처럼 반대파인 형제들과 동족(uksun)을 죽이고 항복한 것도 있고, 棟鄂部長 克鞞 巴顏은 寧古塔部를 공격하여 쇠퇴의 길을 걸게한 장본인이었는데, 그 손자인 何和里에 의해 복속된 것이다.

둘째, 각 酋長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部下(jusen)와 國民(irgen)을 그대로 인수하여 귀순하였다는 점이다. 部의 지도자인 유력한 大酋長이 자원하여 귀속하였을 때 隸民의 領有權을 가진 채로 누루하치의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酋長의 隸民과의 관계는 八旗制 속에서 융화·개편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酋長들의 子孫은 처음부터 선택된 신분

50) 同上書 卷 2, 戊子 4月, pp. 55~56

이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특출하여 滿洲國建立에 1등 공신이 된 사람이다. 즉 費英東, 何和里, 扈爾漢은 그들에 앞서 누루하치에 예속하였던 額亦都, 安費揚古와 더불어 國初 五大臣으로 칭송되던 인물로서 滿洲國 발전에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따라서 이들을 얻게된 것은 滿洲國의 성장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촉진제가 된 것이다.

세째로 明朝에 충성하고 朝貢關係를 유지하므로써 5百道의 勅書를 얻게된 것은 팔복할만한 사실이다. 이 勅書는 여진족 酋長이 明皇帝의 권위를 업고 자기의 部民에게 군림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明人과 국경에 있는 馬市(關市)를 통하여 교역할 수 있는 무역허가증(貢勅)이었던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財寶로 간주되었다. 이 勅書를 이용하여 撫順·清河·寬甸(奠)·靉陽 등의 關所에서 明珠·人參·毛皮등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얻음으로써 滿洲國이 부강하는 契機를 맞게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누루하치는 정치적으로 6개의 部를 통합하여 gurun을 형성할 기반을 완성하였고 거기에 알맞는 통치질서를 확립시킨 것이 汗·貝勒·大人과 같은 累層的 支配秩序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五大臣을 예속시키고 그들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자기 1門(uksun)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권력집중에 필수적인 요소가 군사편제였는데 바로 八旗制의 기원이 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끝으로 누루하치의 滿洲國은 汗·貝勒·大人과 같은 上層部와 諸申(jusen)·國民(irgen) 및 阿哈(aha=奴隸)의 下層部로 나누어지는데, 上層部는 下層民의 생산에 기생하면서 노동착취와 誅求를 통하여 부를 증대시켜 나갔는데, 특히 누루하치 1族에 부가 편중되고 따라서 권력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588년은 滿洲國의 발전도상의 하나의 획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차호에 계속).